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본격

도, 상반기 산업분야

1668억원 예산 확보

하반기 국정과제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피지컬AI, K-방산 육성 등 10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반영과 산업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총 1,668억원(20건)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229억원을 확보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과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추진, 피지컬AI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자동차·탄소 융복합 분야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기능성 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 특구에서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확대 적용하고, 공유평가 안전성 실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입과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인프라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전북대학교에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고, 5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화연구센터



“완주군민 무시 통합행위 중단하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완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을 무시한 통합행위를 즉각

〈관련기사 3면〉

(HUB)를 개소함으로써 지역 내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첨단전략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중점을 둔 국정과제 반영을 이어가는 한편, 수소 및 이차전지 분야 예타 대응과 함께 약 4,600억원 규모의 산업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분야별 전략을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새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초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새만금과 송전선로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 조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1.1GW)의 사업시행자 공모와 두 번째 확산단지(1GW)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선도기술 고도화(R&D) 예타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와 R&D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역 내 저·중위험 치료에 대

한 심의 및 승인 허용,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의 재생의료 치료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제도 유연화와 안전성 검증 등을 포함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은 신산업 육성의 최첨단으로, 새만금과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를 위해 정부의 행정 절차에 적기 대응하겠다”라며, “주력산업 전환과 신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글로벌 K-컬처 허브 도약 첫 발 내딛는다

도, 내달 1~14일 'K-POP 아카데미' 시범운영

한국 포함 미국·인도·프랑스 등 10개국 참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 위해 추진

전북자치도가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K-POP 아카데미' 시범 사업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하며,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딛는다. 본 사업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한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고,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출신 청소년 20명이 최종 참가한다.

전북 K-POP 아카데미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10개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자들은 보컬·댄스 트레이닝, 미션 수행, 오디션 무대,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전북의 문화자원과 K-컬처를 융합한 모델을 실증하게 된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도(163명), 러시아(91명), 브라질(45명), 이집트(24명), 인도네시아(22명)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선발 과정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영상 오디션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력과 참여 의지를 평가해 최종 20명을 선발했고, 비자 문제 등으로 불참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인원도 20명 확보해 둔 상태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개별 레벨 테스트, 곡 연습 및 피드백, 신곡 녹음, 커버곡 퍼포먼스, K-문화 체험, 팀별 오디션, 전지운 특강(전 포미닛) 등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날인 8월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공식 쇼케이스와 수료식이 개최된다. 쇼케이스는 A·B·C팀 퍼포먼스와 단체 무대, 특별공연과 시상으로 마무리된다.

참가자들은 체험 과정에서 직접 제작한 브로그, 댄스 영상, 공연 클립 등을 개인 SNS 및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전북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된다. 콘텐츠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도 연계되며, 도는 이를 글로벌 시민의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원은 정식 발매가 예정돼 있으며, 커버곡은 올림픽 유치 메시지를 담은 형태로 리믹스된다. 이밖에도 부안 해변 축제 무대 공연, 전통시장 투어, 한옥마을 체험 등 지역 맞춤형 K-컬처 콘텐츠가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다. 교육과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은 K-POP 전문 영상팀 '카우보이픽처스'가 촬영해 다채로운 아카이빙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K-POP과 전통문화의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속 K-컬처의 원류로서 전북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와 음원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도 활용되며, SNS 기반 민간의교와 스포츠·문화 융합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K-POP 아카데미를 통해 K-컬처와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어우러지는 전북형 글로벌 전략을 실현하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3차 전북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4곳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23일 2025년 제3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공모를 통해 운용사 4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업·벤처(창업초기),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세컨더리(일반), △세컨더리(지역AC)의 4개 분야로 도에서 125억원(익산시 10억 포함)을 출자 약정해 연내 신규 펀드 결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공모 접수는 2025년 8월 7일까지이

도, 내달 7일까지… 창업·스케일업 등 4개 분야

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약대상 운용사를 선정하고, 12월까지 4개 펀드 1,1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9개 분야, 2,69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목표로 출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미 1·2차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1,915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이다.

이는 당초 계획(1,590억원)보다 325억원 증액된 성과다.

이번 3차 공모는 1차, 2차 출자사업에서 미선정되거나 출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재공고하는 것이며, 공공 정책펀드에 선정된 운용사와 연계해 펀드 결성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북에서 운용하는 벤처펀드는 총 22개 펀드, 8,183억원으로 올해 목

표한 9개 펀드 2,690억원을 신규 결성한다면 전북에서 운용하는 벤처펀드는 1조원 규모를 넘게 된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에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게 된다면 도에서 출자한 1,000억원의 200%인 2,000억원 이상이 안정적인 투자 재원으로 도내 창업기업에 공급될 것”이라며,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www.jonbuk.go.kr) 고시/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의회 출범 30주년



전수관 운영위원장



이정자 부의장



서백현 의장



문순자 행정복지위원장



오승경 경제도시위원장



주상현 의원



이병철 의원



김주백 의원



김명자 의원



최승선 의원



황배연 의원



김승일 의원



양운엽 의원

시민과 함께 걸어온 30년,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곁에 서겠습니다.